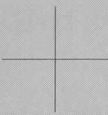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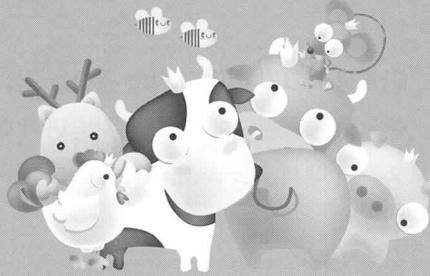


# CHUKSAN News

• 축산소식



## Hanwoo News 한우소식

### 한우산업 사수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농민대표자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한우협 회장단  
 삭발 '의지 천명'



▶ 한우협회 회장단이 삭발을 감행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우영목 경기도지회장, 정호영 경남도지회장,  
 김명재 강원도지회장, 김남배 전남도지회장, 조위필 충북도지회장)

(사)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쇠고기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요구를 위한 농민대표자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과정에서 회장단 삭발식을 갖고 한우산업 사수의지를 거듭 천명

했다.

이날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는 AI가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도 한미쇠고기 협상을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AI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전체농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단 삭발은 한우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한우농가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또 5만8천 한우농가에 발송한 호소문을 통해 한우농가들 연이은 자살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한우산업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dilee@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5월 19일】

## Dairy Farming News 낙농소식

### 원유가 29.4% 인상 불가피 입장 표명

#### 낙육협, 5월말까지 미관철시 강경대응 선포

낙농육우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29.4%의 원유가 인상을 관철키로 결의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19일 축산회관에서 전문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일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원유가 현실화에 대해 29.4%의 인상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2008년 우유생산비 추정 결과, 34.4%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어려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5% 낮은 29.4%의 인상률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부차적으로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 CHUKSAN News

• 축산소식



마련 ▲제도적인 소비확대방안 마련 ▲제품가 인상을 최소화 ▲퀴터삭감 우려 불식 등을 함께 요구키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입장 정리를 토대로, 30일 예정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4월 24일 있었던 이사회 의결사항대로 낙농인총궐기 등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승호 회장은 사료값 폭등, 원유가 폭등 등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원유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상에 따른 소비부진은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업체 또한 농가의 유대인상을 빌미로 판매가를 과도하게 인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유가가 협회의 요구안대로 29.4% 인상될 경우 유대는 현재의 기준가격인 584원/l 에서 172원 오른 756원/l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유는 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53.2%로 전축종 중 가장 높아(자료:농산물품질관리원), 낙농가는 최근의 사료값 폭등과 관련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라이브뉴스 김수영 기자, a1@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8년 5월 19일]

## Swine News 양돈소식

### 88 양돈 미 쇠고기 전면개방 대비 중장기 대책 시급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업에 대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산 쇠고기 수입 이후 유통과 소비 등에서 국내 시장 잠식 효과가 적어도 1년 안에는 나타나 것으로 보고 있어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1만1300가구였던 양돈농가수는 최근 배합사료값이 잇따라 급등함에 따라 지난 1분기 기준 7,900가구로 30% 이상 감소했고 규모별로는 1,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1,000~5,000마리를 키우는 전업경영 농가 위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양돈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장려금이나 융자금 위주의 임시정책으로는 국내 양돈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양돈장 시설개선과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차원의 가축분뇨처리, 돼지열병 청정화 3년내 달성,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등 양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양돈이 산업적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자급률을 80%선에서 확정하는 한편 정부 정책을 지금의 임시 대책 위주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Poultry News 양계소식

## ㉞ AI여파 심각... 닭고기 소비 '뚝'

업계에 따르면 연차적인 AI발생으로 40%까지 하락한 닭고기 소비가 어린이날 등을 앞두고 소폭 오름세를 보여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 듯 보였으나 지난 6일 AI가 서울에서 까지 발생되면서 20%가 추가 급락, 예년보다 50~60%가량 소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희 이마트 계육담당 바이어는 "서울에서 AI가 발생했다는 보도 이후 소비자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오리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으며 생닭 수요도 크게 줄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바이어들은 이 같은 현상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춘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점포 당 닭고기 주문물량도 5월 6일 이후 60~70%가량 줄어들어 발주량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체인점 등 닭고기 외식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 큰 인기를 끌던 춘천 닭갈비 전문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Deer Breebers 양록소식

## ㉞ "수입육용 근절하자"

양록협회, 임원 및 지회장 연석회의



▶한국양록협회가 7일 대전에서 개최한 '2008년도 임원 및 지회장·사무장 연석회의'에서 60여명의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수입육용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록농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5월 7일, '2008년도 임원 및 지회장·사무장 연석회의'를 대전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평소 지회활동을 하며 겪은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협회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회와 지회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는 약 60여명의 지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농관원 적발사례를 발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지원 전용주 계장은 "국내산육용의 재고가 바닥 때인 연초부터 5월초 사이에 수입육용 불법 유통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계장은 "수입육용 불법유통 문제는 양록농가 권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양록인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수입육용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농관원 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사례발표와 수입육용 식별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 수입육용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